

3, 4, 5세 유아의 공격행동에 대한 도덕 판단 및 정당화 추론과 틀린믿음 이해와의 관계*

The Moral Judgment and Justification Reasoning in terms of Aggressive Behavior
by 3, 4 and 5 Year Olds : The Relationship to Children's False Belief Understanding*

김유미(Yu Mi Kim)¹⁾
이순형(Soon Hyung Yi)²⁾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investigate children's moral judgment, justification reasoning in terms of aggressive behavior, and (2) it examined the relationship to false belief understanding. Children aged between 3 to 5 years($N = 120$) participated in this study. Each child was interviewed individually and responded questions designed to measure his/her moral judgment and justification reasoning and false belief understanding. The 12 pictorial tasks consisted of selfish and altruistic intentions and three different types of acts (physical, verbal, relational) as responses to aggressive behavior.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kind of moral judgment used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intention and the types of ac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justification reasoning according to the age and the types of acts.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alse belief understanding and moral judgment, justification reasoning. This paper also provided a detailed discussion of the results and recommendations in the context of more general cognitive developmental changes.

Keywords : 공격행동(aggressive behavior), 도덕 판단(moral judgment), 정당화 추론(justification reasoning), 틀린믿음 이해(false belief understanding).

* 본 논문은 2013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구두발표 논문임.

¹⁾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²⁾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Soon Hyung Yi,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E-mail : ysh@snu.ac.kr

I. 서론

유아기는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며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때로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다. 도덕적 사고는 어떤 행위나 상황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태도인 도덕 판단과 판단의 이유를 설명하는 정당화 추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도덕 판단 능력은 정직, 이타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Blasi, 1980; Kim & Ohm, 2006). 그리고 성숙한 정당화 추론 능력은 친사회적 행동(Underwood & Moore, 1982)과 낮은 수준의 공격행동(Ward, 1995)과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도덕적 사고와 도덕적 행동에 대한 관련성을 근거로 도덕 판단 및 정당화 추론은 도덕성 발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로 다루어져 왔다.

유아기 도덕성 발달에 대한 연구는 유아가 행위에 대한 판단 시 의도를 고려하는가에 대한 Piaget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Piaget의 연구를 바탕으로 Kohlberg(1976)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점차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고, 이후 더 넓은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게 된다는 도덕 발달 단계를 제시하였다. Piaget, Kohlberg와 같은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도덕추론의 발달특성을 밝히고, 성숙한 도덕 추론 능력이 어떻게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이끌어내는지에 주요한 관심을 두었다(Jeong, 2011). 즉, 이러한 이성주의 모형의 관점에서는 추론을 통하여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간주하며 추론능력을 기준으로 도덕성 발달을 살펴보았다(Cushman, Young, & Hauser, 2006). 이러한 맥락에서 Kohlberg 역시 도덕발달 단계를 도덕적 의사결정을 정당화하는 추론 능력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은 도덕 판단과 판단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정당화 추론을 서로 구분하며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한다(Haidt, 2001).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에서는 도덕 판단은 정당화 추론에 비해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특징이 있다고 설명한다. 지금까지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전통적 관점의 이성주의 모형에 근거하여 도덕성 발달을 정의하고 발달 특성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도덕 판단과 정당화 추론이 서로 구별되는 능력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유아의 도덕 판단과 정당화 추론 발달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에 관련 있는 요인이 서로 다른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행동의 의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의도적인 행동과 우연적인 행동을 구분한다는 의미와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행동의 동기가 되는 의도를 고려할 수 있는가의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능력이다(Malle, 1999). 그러나 지금까지 도덕성 발달 연구는 Piaget의 연구내용과 같은 전자에 해당하는 의도성 여부 즉, 의도적 행동과 우연적 행동을 구분하는지에 관한 것이 대다수이다(Killen, Mulvey, Richardson, Jampol, & Woodward, 2011; Lane, Wellman, Olson, LaBounty, & Kerr, 2010). 그에 비해 도덕 판단에서 의도의 종류와 같은 세부맥락을 고려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연구는 적은 편이다. 그리고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의도적인 것이어야 하므로(Shultz, 1980) 유아가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도덕 판단을 할 때 세부 의도를 고려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유아가 도덕 판단에서 세부 의도맥락을 고려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좋은 의도와 나쁜 의도를 가진 공 던지기(Nelson, 1980), 달리기(Baird & Moses, 2001), 물이 나오는 호스의 방향을 바꾸기(Baird & Astington, 2004)와 같은

중립적인 행동에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조합하였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같이 놀려고 하는 좋은 의도 또는 일부러 맞추려는 나쁜 의도의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친구에게 공을 던진다. 그래서 친구가 공을 잡고 놀았다는 좋은 결과와 친구가 공을 맞고 울었다는 나쁜 결과를 조합하여 과제를 구성하였다(Nelson, 1980). 그 결과 5세는 의도 구분이 가능하고(Baird & Moses, 2001), 3세와 5세는 행동의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에는 의도를 구분하여 도덕 판단을 하였으나,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의도에 따른 판단의 차이가 없었다(Constanzo, Coie, Grumet, & Farnill, 1973; Nelson, 1980). 이와 같이 중립적인 행동에 의도와 결과를 조합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경험을 제한적으로만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도덕인지는 상황이나 문화적 맥락과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태학적 타당성이 매우 중요하다(Moll, Zahn, Oliveira-Souza, Krueger, & Grafman, 2005). 따라서 도덕적 딜레마와 마찬가지로 중립적 행동으로 구성된 과제는 극단적이거나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한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과제 상황은 유아에게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유아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행동 중 공격행동은 또래 관계에서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문제행동이며 행위자체에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중립적 행동이 아닌 공격행동에 대해서도 유아가 의도를 고려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공격행동의 동기인 의도는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기적 의도와 남을 돕기 위한 친사회적 의도인 이타적 의도로 나눌 수 있다(Rule, Nesdale, & Mcara, 1974). 또한 공격행동은 행동의 유형에 따라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공격으로 나눌 수 있다. 신체적 공격은 행위자

가 공격대상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동이고, 언어적 공격은 공격대상에게 언어를 매개로 심리적,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동이다(Frodi, Macaulay & Thome, 1977). 관계적 공격은 타인의 사회적 관계에 손상을 주기위해 또래 간의 관계를 조정하거나 집단에서 소외시키는 집단적 행동이다(Crick & Grotpeter, 1995). 갈등상황에서 어린 유아는 때리기, 뺏기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으나, 유아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신체적 공격은 감소하며(Eigenberg & Garvey, 1981; O'Brien et al., 1999), 관계적 공격은 3세경부터 나타나서 아동기 중반까지 점차 증가한다(Underwood, 2003).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유아의 연령과 공격행동의 유형에 따라서 도덕 판단과 정당화 추론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위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추론하는 능력은 유아의 인지능력과 관련이 있다(Astington, 2004; Flavell, Miller, & Miller, 1993; Lasplesley, 1996).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규칙을 어긴 행동을 우연히 규칙을 어긴 행동보다 더 잘못된 행동으로 판단하는 능력은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는 조망수용 능력과 관련이 있었다(Núñez & Harris, 1998).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는 인지능력으로는 행위자가 가지는 믿음, 소망, 의도와 같은 마음상태를 고려하여 행동을 이해하는 마음이해 능력을 들 수 있다. 마음이해 능력 중 틀린믿음 이해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실체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의 틀린믿음을 근거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며(Bartsch & Wellman, 1995), 틀린믿음 이해 과제를 통과하는 것은 기본적인 마음이해 능력의 발달 지표로 간주된다(Wellman, 2010).

틀린믿음 이해와 도덕 판단 및 정당화 추론능력

은 외현적 특성인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이면에 숨겨진 행동의 의도와 목적을 고려하는지를 중요하게 간주하는 공통점이 있다(Peterson & Siegal, 2002). 틀린믿음 이해 능력은 도덕 판단에서 의도적 행동과 우연적 행동(Sokol, Chandler, & Jones, 2004), 나쁜 의도와 선한 의도의 행동(Baird & Astington, 2004), 거짓과 실수(Son & Yu, 2011), 도덕 규범행동과 사회인습 행동(Chun & Lee, 2013)을 구분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또한 정당화 추론 능력은 연령에 따른 차이(Baird & Astington, 2004; Eisenberg & Neal, 1981; Kim & Yi, 2008; Kohlberg, 1976; Lee & Yi, 2003) 뿐만 아니라 타인의 관점과 의도를 고려하는 인지적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조망수용 과제에서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취하는 유아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과제에서 타인의 욕구나 감정을 고려하기 보다는 쾌락주의 지향과 같은 낮은 수준의 도덕추론 유형을 사용한다(Eisenberg & Roth, 1980). 특히 틀린믿음 이해 능력은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정당화 추론 능력을 예측하는 변수이며(Lane et al., 2010), 공격행동에 대한 추론능력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Kim & Yi, 2007). 그리고 틀린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는 틀린믿음 과제를 통과한 유아에 비해 우연히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더 나쁜 행동이며 부정적 의도가 있다고 추론하였다(Killen et al., 2011).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틀린믿음 이해와 도덕 판단 및 정당화 추론의 관계를 밝히고 있지만 주로 이성주의 모형에 기반하여 도덕 판단 또는 정당화 추론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당화 추론은 도덕 판단에 비해 도덕적 문제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덕 판단과의 관련성을 살펴 본 연구가 대다수이며 정

당화 추론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Lane et al., 2010). 따라서 타인의 의도, 믿음, 소망을 고려하는 인지능력인 틀린믿음 이해가 즉각적인 도덕 판단과 의식적 이유 부여에 해당하는 정당화 추론과 각각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만 3,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공격행동의 의도와 유형에 따라 도덕 판단과 정당화 추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공격행동에 대한 유아의 도덕 판단 및 정당화 추론과 틀린믿음 이해 능력과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만 3, 4, 5세 유아의 도덕 판단 및 정당화 추론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만 3, 4, 5세 유아의 도덕 판단 및 정당화 추론은 공격행동의 의도와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만 3, 4, 5세 유아의 도덕 판단 및 정당화 추론은 틀린믿음 이해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의 중류층 가정이 거주하는 지역의 어린이집 3곳에 다니는 유아 중 부모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3, 4, 5세 유아 각 40명씩 총 120명을 남녀 동수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3세가 도덕 판단에서

의도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며 (Nelson, 1980), 틀린 믿음에 대한 이해가 4세경에 이루어지므로(Kim, 1997; Wellman, Cross, & Watson, 2001) 연구 대상을 3, 4, 5세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월령은 3세는 3년 5개월 (SD = 3.29, 36개월~46개월), 4세는 4년 5개월 (SD = 3.43, 48개월~58개월), 5세는 5년 5개월 (SD = 2.87, 60개월~70개월)이다.

2. 연구도구

1) 공격행동 과제 구성과 도덕 판단 및 정당화 추론 분석기준

(1) 공격행동 과제 구성

유아는 어머니, 형제, 또래와 각각 상이한 갈등 행동을 보이며(Dunn & Slomkowski, 1992). 또래 간 요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론 범주로 반응하지만, 성인의 요구에 대해서는 주로 권위, 처벌, 복종에 대한 정당화로 표현한다(Eigenberg, Lundy,

Shell, & Roth, 1985). 이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공격행동을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공격행동으로 제한하였고, Park와 Yi(2005), Kim과 Yi(2007)의 과제를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공격행동 과제는 이기, 이타의 두 가지 의도와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공격의 세 가지 유형을 조합한 총 12개의 이야기로 Table 1과 같다. 유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아에게 공격행동의 의도와 유형이 묘사된 20cm × 15cm 크기의 그림카드 2장을 제시하였고, Table 2에 제시된 예와 같이 각 과제 주인공의 성별은 면접에 참여한 유아의 성별과 일치시켰다. 그리고 인물의 표정은 타인의 행동(Gove & Keating, 1979)과 타인에 대한 정보(Gnepp, 1983)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도록 그림카드에 인물의 표정을 그리지 않는 것으로 통제하였다.

(2) 도덕 판단 분석기준

도덕 판단 척도는 행동을 해도 되는지 안 되

<Table 1> Combinations of intention and types of aggressive behavior

	Intention of act	Type of act	No
Selfish	To take away a friend's balloon	Physical	1
		Verbal	2
		Relational	3
	To take away a friend's swing	Physical	4
		Verbal	5
		Relational	6
Altruistic	To help a friend being bullied	Physical	7
		Verbal	8
		Relational	9
	To help a friend whose toy was taken away	Physical	10
		Verbal	11
		Relational	12

〈Table 2〉 Examples of moral judgment and justification reasoning tasks

Intention of act		Type of act	
Selfish	Youngsoo wanted to have Minsoo's balloon, but Minsoo did not give Youngsoo his balloon.	Physical	So, Youngsoo hit Minsoo.
		Verbal	So, Youngsoo said bad words to Minsoo.
		Relational	So, Youngsoo told his classmates not to play with Minsoo, and nobody played with Minsoo.
Altruistic	Mina saw Nari bothering Yura, and Mina decided to help (thought of helping) Yura.	Physical	So, Mina hit Nari.
		Verbal	So, Mina said bad words to Nari.
		Relational	So, Mina told her classmates not to play with Nari, and nobody played with Nari.

는지를 평가하는 질적 척도와 잘하거나 잘못된 정도를 평가하는 양적 척도가 있다. 이 중 양적 평가 방법은 행동의 상대적인 심각성 또는 허용성 정도에 대한 직접적 정보를 제공하는 척도로 연령차와 행동의 의도, 결과와 같은 정보의 영향을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다(Zelazo et al., 1996). 이 연구에서는 Krancmar와 Valkenburg(1999)가 유아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적용한 7점 척도 평정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유아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 주인공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혹은 잘하지도 잘못하지도 않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이때 지름 3cm 웃는 표정, 찡그린 표정, 중립적 표정의 얼굴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유아에게 말로 응답하거나 손으로 지목하도록 하였다. 그 후 유아의 응답에 따라 행동에 대한 판단을 3점 척도로 재평가한다. 예를 들어 잘했다고 응답한 경우 잘한 정도에 따라 얼굴의 크기와 표정에서 차이가 있는 웃는 얼굴 그림 3개를 제시하고 얼마나 잘했는지 재평정하였다. 각 얼굴 표정의 지름은 '매우 잘했다.' 7cm, '잘했다.' 5cm, '조금 잘했다.' 3cm이며 웃는 표정의 입모양은 '매우 잘했다.'로 갈수록 더 크게 웃는 것으로 표현했다. 유아에게 잘못했다고 응답한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크기와 표정의 정도가 다른 찡그린 얼

굴 3개가 그려진 카드를 제시하여 재평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아의 도덕 판단은 '매우 잘했다' 6점, '잘했다.' 5점, '조금 잘했다.' 4점, '잘하지도 잘못하지도 않았다.' 3점, '조금 잘못했다.' 2점, '잘못했다.' 1점, '매우 잘못했다.' 0점의 총 7점 척도로 분석하였다.

(3) 정당화 추론 분석기준

유아의 정당화 추론을 알아보기 위하여 도덕 판단을 묻고 난 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질문하여, 유아의 응답에 따라 추론 유형을 구분하고 추론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는 Krancmar와 Valkenburg(1999)가 Eisenberg-Berg(1979)의 도덕 추론 척도를 수정한 대인폭력에 대한 판단 척도(MIIV: Moral Interpretation of Interpersonal Violence)를 이용하여 추론 유형 및 점수를 산출하였다. 각 추론 유형에 따라 수준별로 0점에서 5점까지의 추론 점수를 부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 추론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추론 유형의 정의와 추론 점수 및 응답 사례는 Table 3과 같다. 도덕 추론 범주는 아동학 박사과정 2인에 의해 평정되었으며 평정자간 신뢰도는 .92였다. 두 평정자의 평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사된 자료를 근거로 합의하여 분류했다.

〈Table 3〉 Justification reasoning categories and scores

Category	Score	Definition	Response example
Punishment · authority reasoning	0	Referred to the direct authority or punishment	“Because my mom scolded me” “The police caught me”
Stereotypical reasoning	1	Stereotyped mentions of good and bad behavior	“It is wrong to hit someone”
Hedonism reasoning	2	Selfish acquisition-oriented mentions	“Because she deprives”
Need-oriented reasoning	3	Referred to the physical safety of individuals or the pain	“He could get hurt if you kick him”
Perspective taking reasoning	4	Motivation of the actors mentioned in the good and bad	“She wants to help a friend”
Human rights reasoning	5	Mention of human rights	“He has a right to do that.”

2) 틀린믿음 이해 과제의 구성

유아의 틀린믿음 이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치변화 과제(Wimmer & Perner, 1983)와 내용물 교체 과제(Perner, Leekam, & Wimmer, 1987)를 수정하여 실시하였고 배경 그림과 손 인형을 보조 자료로 사용하였다. 틀린믿음 이해 과제는 위치변화 과제 2개(곰과 케이크, 토끼와 선물)와 내용물교체 과제 2개(반창고 상자 속 사탕, 크레파

스 통 속 양초) 총 4개로 구성되며 Table 4, Table 5와 같다. 각 과제당 검사 질문은 2개이며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여 확인질문에 정답을 한 유아에게만 검사질문을 하였다. 각 검사질문은 정답 시 1점을 부여하여 틀린믿음 이해 점수의 범위는 0점~8점이며 틀린믿음 이해를 측정하는 8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4였다.

〈Table 4〉 False belief task: Location change

The little bear placed the cake on the table and went out to play. Then, mother bear came home and put the cake in the refrigerator. After a while, the little bear came back to pick up his cake. Control Question: “Where did the little bear put his cake?” “where is the cake now?”
Test Question(Thinking prediction): Where will the little bear think the cake is?
Test Question(Action prediction): Where will the little bear look for the cake?

〈Table 5〉 False belief task: Unexpected contents

Experimenter showed a band-aid box to children, and asked children, “guess what’s in this box?”. When opening the box, children found a candy instead of band-aids. Next, the experimenter put a candy back into the band-aid box and closed it. Control Question: “What is in this box now?” A rabbit who did not see the above processes appeared.
Test Question(False belief-self): Before the box was opened, what did you expect to see in this box?
Test Question(False belief-other): What does a rabbit expect to see in this box?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과제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경기도 중류층 가정이 거주하는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 1곳에서 만 2, 3, 4, 5세 유아 각 5명씩 총 20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만 2세는 틀린민음 이해 과제 이해도가 낮고 공격행동에 대한 도덕 추론 질문에 대한 답을 거의 하지 못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만 3, 4, 5세 유아는 실험 과제를 잘 이해하였고 개별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20분 정도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연구자와 검사 실시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은 아동학 전공자 2명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내 독립된 장소에서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과제의 순서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과제 유형 내에서 역 균형화 방법(counterbalancing)을 적용하였고 모든 응답은 녹음기로 녹음 한 후 전사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에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대응표본 t 검정(paired samples t -test),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교차분석, 반복 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틀린민음 이해 점수와 도덕 판단 및 정당화 추론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연령, 공격행동의 의도 및 유형에 따른 도덕 판단 및 정당화 추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연령을 피험자 간 요인으로 하고 의도와 유형을 피험자 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주 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 분석을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여 단순 주효과(simple main effect)를 분석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틀린민음 이해와 공격행동의 의도와 유형에 따른 도덕 판단 및 정당화 추론 능력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및 편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분석

1. 공격행동의 의도 및 유형에 따른 도덕 판단 및 정당화 추론의 전반적인 경향

1) 공격행동의 의도 및 유형에 따른 도덕 판단의 전반적인 경향

유아의 연령, 공격행동의 의도 및 유형에 따른 도덕 판단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유아의 도덕 판단 점수의 평균은 모든 공격행동의 의도와 유형에 대해 잘하지도 잘못하지도 않았음을 의미하는 평정점수인 3점 미만이었으며 세부적인 의도와 공격행동의 유형에 따라 판단점수가 달라졌다.

2) 공격행동의 의도와 유형에 따른 정당화 추론의 전반적인 경향

유아의 연령, 공격행동의 의도 및 유형에 따른 정당화 추론범주 별 사용 빈도 및 비율 및 점수분포는 Table 7, Table 8과 같다. 유아의 정당화 추론 유형별 빈도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상투화된 추론이 가장 많고 인간의 권리를 언급하는 추론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6〉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variables

Intention	Type	Age			Total
		3 years(n = 40)	4 years(n = 40)	5 years(n = 40)	(n = 120)
		M(SD)	M(SD)	M(SD)	M(SD)
Selfish	Physical	.88(1.34)	.93(.94)	.45(.85)	.75(1.08)
	Verbal	1.28(1.78)	1.25(1.50)	.80(1.16)	1.11(1.51)
	Relational	1.05(1.38)	1.20(1.49)	.62(.87)	.96(1.29)
	Total	1.07(1.16)	1.13(.73)	.63(.77)	.94(.92)
Altruistic	Physical	1.50(2.00)	.63(1.03)	1.17(1.68)	1.10(1.65)
	Verbal	1.52(1.83)	1.65(1.58)	1.43(1.52)	1.53(1.63)
	Relational	1.72(2.04)	2.02(2.03)	1.45(1.65)	1.73(1.91)
	Total	1.58(1.48)	1.43(1.14)	1.35(1.28)	1.46(1.30)
Total	Physical	1.19(1.50)	.78(.82)	.82(1.02)	.93(1.15)
	Verbal	1.40(1.52)	1.45(1.11)	1.12(1.20)	1.32(1.29)
	Relational	1.39(1.38)	1.61(1.53)	1.04(1.00)	1.35(1.33)
	Total	1.33(1.16)	1.28(.77)	.98(.91)	1.20(.96)

〈Table 7〉 Frequency of justification reasoning about aggressive behavior

Intention	Type	Age	Punishment · authority (%)	Stereo-typical(%)	Hedonism (%)	Need-oriented (%)	Perspective taking (%)	Total(%)	χ^2
Selfish	Physical	3	4(5.0)	46(57.5)	20(25.0)	10(12.5)	0(0)	80(100)	11.69 (df = 8)
		4	6(7.5)	34(42.5)	26(32.5)	10(12.5)	4(5.0)	80(100)	
		5	0(0)	38(47.5)	18(22.5)	12(15.0)	12(15.0)	80(100)	
	Verbal	3	2(2.5)	54(67.5)	18(22.5)	4(5.0)	2(2.5)	80(100)	10.39 (df = 8)
		4	4(5.0)	36(45.0)	34(42.5)	4(5.0)	2(2.5)	80(100)	
		5	0(0)	36(45.0)	30(37.5)	6(7.5)	8(10.0)	80(100)	
	Relational	3	6(7.5)	48(60.0)	16(20.0)	4(5.0)	6(7.5)	80(100)	15.79* (df = 8)
		4	2(2.5)	24(30.0)	38(47.5)	8(10.0)	8(10.0)	80(100)	
		5	0(0)	26(32.5)	32(40.0)	10(12.5)	12(15.0)	80(100)	
Altruistic	Physical	3	2(2.5)	54(67.5)	16(20.0)	6(7.5)	2(2.5)	80(100)	18.69* (df = 8)
		4	8(10.0)	58(72.5)	2(2.5)	8(10)	4(5.0)	80(100)	
		5	2(2.5)	38(47.5)	20(25.0)	6(7.5)	14(17.5)	80(100)	
	Verbal	3	2(2.5)	56(70.0)	20(25.0)	2(2.5)	0(0)	80(100)	19.24* (df = 8)
		4	2(2.5)	58(72.5)	8(10.0)	8(10.0)	4(5.0)	80(100)	
		5	0(0)	38(47.5)	22(27.5)	4(5.0)	16(20.0)	80(100)	
	Relational	3	0(0)	60(75.0)	14(17.5)	6(7.5)	0(0)	80(100)	22.37** (df = 8)
		4	6(7.5)	44(55.0)	8(10.0)	10(12.5)	12(15.0)	80(100)	
		5	0(0)	32(40.0)	18(22.5)	10(12.5)	20(25.0)	80(100)	

〈Table 8〉 The justification reasoning scores according to the intention and type of aggressive behavior

Intention	Type	Age			Total
		3(<i>n</i> = 40)	4(<i>n</i> = 40)	5(<i>n</i> = 40)	(<i>n</i> = 120)
		M(SD)	M(SD)	M(SD)	M(SD)
Selfish	Physical	1.45(.78)	1.65(.98)	1.98(1.12)	1.69(.99)
	Verbal	1.38(.74)	1.55(.78)	1.82(.96)	1.58(.85)
	Relational	1.45(.99)	1.95(.96)	2.10(1.03)	1.83(1.02)
	Total	1.43(.65)	1.72(.64)	1.97(.93)	1.70(.78)
Altruistic	Physical	1.40(.78)	1.28(.96)	1.90(1.17)	1.52(1.10)
	Verbal	1.28(.55)	1.42(.90)	1.98(1.17)	1.56(.95)
	Relational	1.32(.62)	1.72(1.24)	2.22(1.23)	1.76(1.12)
	Total	1.33(.52)	1.48(.78)	2.03(1.00)	1.61(.84)
Total	Physical	1.43(.59)	1.46(.75)	1.93(.98)	1.61(.82)
	Verbal	1.33(.53)	1.49(.64)	1.90(.84)	1.57(.72)
	Relational	1.39(.59)	1.84(.96)	2.16(.94)	1.80(.90)
	Total	1.38(.49)	1.60(.64)	2.00(.83)	1.66(.71)

응답의 구체적인 경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기적 의도의 관계적 공격($x^2 = 15.79, p < .05$), 이타의도의 신체적 공격($x^2 = 15.79, p < .05$), 언어적 공격($x^2 = 15.79, p < .05$), 관계적 공격($x^2 = 15.79, p < .05$) 추론에서 연령차가 유의했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범주의 수행을 살펴보면 3세에 비해 4세와 5세가 처벌 권위지향적인 추론범주의 사용이 적고, 욕구 충족적 추론이나 타인의 필요지향, 조망수용의 유형으로 자신의 판단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2. 공격행동의 의도와 유형에 따른 도덕 판단 및 정당화 추론

1) 공격행동의 의도와 유형에 따른 유아의 도덕 판단

공격행동에 대한 유아의 도덕 판단이 공격행

동의 의도,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연령을 집단 간 변인으로 하고 공격행동의 의도, 유형을 집단 내 변인으로 반복 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9와 같이 공격행동 의도의 주 효과($F(1, 117) = 23.61, p < .001$), 공격행동 유형의 주 효과($F(2, 234) = 9.98, p < .01$), 의도와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F(2, 234) = 4.40, p < .05$)가 나타났다.

먼저 의도의 주 효과($F(1, 117) = 23.61, p < .001$)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 검증을 한 결과 이기적 공격행동에 대한 판단점수는 이타적 공격행동보다 낮았다($t = -4.87, p < .001$). 또한 유형의 주 효과($F(1, 117) = 9.98, p < .01$)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 검증을 한 결과 Table 10과 같이 신체적 공격에 대한 판단점수는 언어적 공격($t = -3.36, p < .01$), 관계적 공격($t = -3.51, p < .01$)보다 낮았다.

〈Table 9〉 Results of repeated measures ANOVA for moral judgment according to age, intention, and type of act

	Source	SS	df	MS	F
Between factor	Age	16.09	2	8.04	1.45
	Error	647.91	117	5.54	
Within factor	Intention	48.05	1	48.05	23.61***
	Intention×age	5.21	2	2.60	1.28
	Error	238.08	117	2.04	
	Type	21.25	2	21.25	9.98**
	Type×age	10.429	4	5.215	2.5
	Error	249.07	234	2.13	
	Intention×type	5.42	2	5.42	4.40*
	Intention×type×age	7.36	4	3.68	3.00
Error	143.97	234	1.23		

* $p < .05$. ** $p < .01$. *** $p < .001$.

〈Table 10〉 The main effect of moral judgment score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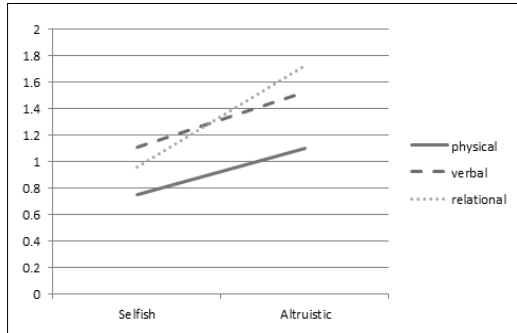
Type of act	N	M	SD	t
Physical - verbal	120	1.73	2.20	-3.36**
	120	2.53	2.42	
Physical - relational	120	1.73	2.20	-3.51**
	120	2.66	2.66	
Verbal - relational	120	2.53	2.42	-.50
	120	2.66	2.66	

** $p < .01$.

〈Table 11〉 The main effect of moral judgment score analysis

	N	M	SD	t	
Selfish	Physical - verbal	120	.75	1.08	-2.77**
		120	1.11	1.51	
	Physical - relational	120	.75	1.08	-1.51
		120	.96	1.29	
Altruistic	Verbal - relational	120	1.11	1.51	.90
		120	.96	1.29	
	Physical - verbal	120	1.10	1.65	-2.41*
		120	1.53	1.64	
Physical - relational	120	1.10	1.65	-3.23**	
	120	1.73	1.91		
Verbal - relational	120	1.53	1.64	-1.18	
	120	1.73	1.91		

* $p < .05$. ** $p < .01$.



〈Figure 1〉 Interaction effects according to intention

공격행동의 의도와 유형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F(2, 234) = 4.40, p < .05$), 의도별 유형에 따른 판단점수를 비교한 결과 Table 11, Figure 1과 같이 이기의도의 신체적 공격이 이타의도의 언어적 공격에 비해 나쁜 것으로 판단하였고($t = -2.77, p < .01$), 이타의도의 신체적 공격이 이타의도의 언어적 공격($t = -2.41, p < .05$), 이타의도의 관계적 공격($t = -3.23, p < .01$)

보다 나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공격행동의 의도 및 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당화 추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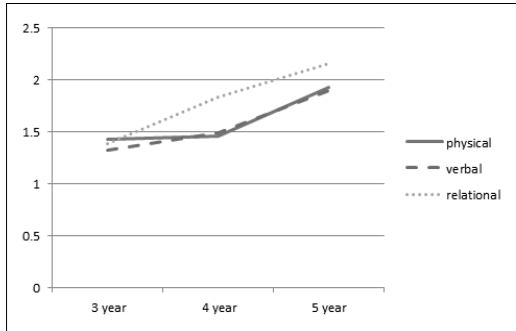
공격행동에 대한 유아의 도덕 추론이 공격행동의 의도,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연령을 집단 간 변인으로 하고 공격행동의 의도, 유형을 집단 내 변인으로 반복 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12와 같이 연령의 주 효과($F(2, 117) = 8.94, p < .001$), 유형의 주 효과($F(2, 234) = 8.50, p < .01$), 유형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F(2, 234) = 3.52, p < .05$)가 나타났다.

연령의 주 효과($F(2, 117) = 8.94, p < .001$)를 살펴보기 위한 사후검정 결과 3세와 4세는 5세에 비해 낮은 수준의 추론 유형을 사용했다. 유형의 주 효과($F(2, 234) = 8.50, p < .01$)를 세부

〈Table 12〉 Results of repeated measures ANOVA for justification reasoning according to age, intention, and type of act

		SS	DF	MS	F	Scheffé
Between factor	Age	47.66	2	23.83	8.94***	3,4 < 5
	Error	311.96	117	2.67		
Within factor	Intention	1.42	1	1.42	1.54	
	Intention×age	2.85	2	1.43	1.54	
	Error	108.06	117	.92		
	Type	4.22	2	4.22	8.50**	
	Type×age	3.49	4	1.74	3.52*	
	Error	58.04	234	.50		
	Intention×type	.25	2	.25	.50	
	Intention×type×age	.43	4	.22	.40	
	Error	63.07	234	.539		

* $p < .05$. ** $p < .01$. *** $p < .001$.



〈Figure 2〉 Justification reasoning based on the type of aggressive behavior

적으로 살펴보면, 관계적 공격에 대해 신체적 공격($t = -2.86, p < .01$), 언어적 공격($t = -3.25, p < .01$)보다 높은 수준의 추론유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유형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F(2, 234) = 3.52, p < .05$)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연령별로 사후검증을 한 결과 Figure 2과 같이 4세는 관계적 공격에 대해 신체적 공격($t = -2.83, p < .01$), 언어적 공격($t = -2.50, p < .05$)보다 높은 수준의 추론유형을 사용하였다. 5세의 경우에도 관계적 공격에 대해 신체적 공격($t = -2.13, p < .05$), 언어적 공격($t = -2.19, p < .05$)보다 높은 수준의 추론유형을 사용하였다.

3. 유아의 공격행동에 대한 도덕 판단 및 정당화 추론과 틀린믿음 이해의 관계

1) 틀린믿음 이해 과제 수행의 전반적 경향

유아의 틀린믿음 이해와 공격행동에 대한 도덕 판단 및 도덕 추론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틀린믿음 이해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연령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2, 117) = 39.99, p < .001$) 각 연령별 틀린믿음 이해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scheffé, $3 < 4 < 5$).

2) 유아의 공격행동에 대한 도덕 판단과 틀린믿음 이해의 관계

공격행동의 의도 및 유형에 따른 유아의 도덕 판단과 틀린믿음 이해 점수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4와 같다. 각 연령 별 결과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연령을 통제한 편상관 분석 결과 유아의 틀린믿음 이해 점수는 이기 의도($r = -.18, p < .05$), 신체적 공격($r = -.19, p < .05$)에 대한 판단점수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Table 13〉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variables

False belief understanding	Age	3(n = 40) M(SD)	4(n = 40) M(SD)	5(n = 40) M(SD)	Total(n = 120) M(SD)
Location change	Thinking prediction	.20(.56)	.85(.84)	1.57(.75)	.87(.93)
	Action prediction	.30(.65)	.88(.81)	1.38(.84)	.85(.89)
	Total	.50(1.09)	1.73(1.49)	2.95(1.43)	1.73(1.69)
Unexpected contents	False belief: Self	.70(.85)	.97(.91)	1.25(.90)	.97(.90)
	False belief: Other	.32(.66)	.92(.83)	1.62(.67)	.95(.92)
	Total	1.03(1.23)	1.90(1.32)	2.88(1.18)	1.94(1.48)
Sum		1.53(1.99)	3.63(2.33)	5.83(2.12)	3.66(2.81)

<Table 14> Correlations between false belief understanding and moral judgment

	Age	Moral judgment according to intention of act		Moral judgment according to type of act		
		Selfish	Altruistic	Physical	Verbal	Relational
False belief	3	-.16	-.10	-.28	.10	-.19
	4	-.19	-.01	-.08	-.17	.02
	5	-.13	-.15	-.26	.02	-.19
	Total	-.18*	-.08	-.19*	-.03	-.13

* $p < .05$. (Total: partial correlation controlled by age)

3) 유아의 공격행동에 대한 정당화 추론과 틀린믿음 이해의 관계

또한 공격행동의 의도 및 유형에 따른 각 연령별 정당화 추론과 틀린믿음 이해 점수 간 상관관계와 연령을 통제한 편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5와 같다. 3세의 틀린믿음 이해 점수는 이기 의도의 공격행동($r = .37, p < .05$), 언어적 공격($r = .31, p < .05$)에 대한 추론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5세의 틀린믿음 이해 점수는 이기의도($r = .40, p < .05$), 신체적 공격($r = .36, p < .05$), 언어적 공격($r = .37, p < .05$)에 대한 추론점수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유아의 연령을 통제한 편상관 분석 결과 틀린믿음 이해 점수는 이기의도($r = .30, p < .01$), 이타의도($r = .19, p < .05$), 신체적 공격

($r = .30, p < .01$), 언어적 공격($r = .27, p < .01$), 관계적 공격($r = .18, p < .05$)에 대한 추론점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유아의 도덕 판단 및 정당화 추론이 공격행동의 의도, 유형,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 도덕 판단 및 정당화 추론이 틀린믿음 이해와 각각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3, 4, 5세 유아 12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Table 15> Correlations between false belief understanding and justification reasoning

	Age	Justification reasoning according to intention of act		Justification reasoning according to type of act		
		Selfish	Altruistic	Physical	Verbal	Relational
False belief understanding	3	.37*	.16	.27	.31*	.27
	4	.18	.14	.19	.11	.13
	5	.40*	.21	.36*	.37*	.21
	Total	.30**	.19*	.30**	.27**	.18*

* $p < .05$. ** $p < .01$. (Total: partial correlation controlled by age)

첫째, 유아는 또래 관계에서 발생한 공격행동에 대해 모두 잘못된 행동으로 판단하였으며, 공격행동의 의도와 유형에 따라서 도덕 판단 점수에 차이가 있었다. 모든 공격행동에 대해 잘못된 행동으로 판단한 결과는 어떠한 위반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유아기 도덕 판단의 특성(Choi & Song, 1996; Song, Smetana, & Kim, 1987)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 구성한 이타의도의 공격행동은 선한 의도의 행동이지만 또래 간 갈등을 금지하는 일반적 규칙을 어기는 행동이므로 잘못된 행동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3, 4, 5세는 이기적 공격 행동을 이타적 공격 행동보다 더 나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10세경에 비로소 타인의 의도를 고려할 수 있다는 Piaget(1965)의 견해와 달리 3세 유아도 도덕 판단에서 의도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결과(Baird & Astington, 2004; Baird & Moses, 2001; Kim & Chong, 2000; Nelson, 1980; Park & Yi, 2005; Yuill, & Perner, 1984)를 지지한다. 한편 유아의 도덕 판단은 행동의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에는 의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의도에 따른 도덕 판단 차이가 없다는 결과(Constanzo et al., 1973; Nelson, 1980)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중립적 행동에 좋은 의도와 나쁜 의도 그리고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를 조합하여 과제를 구성하였다(Nelson, 1980). 이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이기와 이타의도의 또래 간 공격행동이라는 유아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 맥락의 과제를 구성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3세가 도덕 판단에서 의도를 고려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유아는 신체적 공격을 언어적, 관계적 공격보다 더 나쁜 행동으로 판단했다. 이는 3세도 공격행동의 의도뿐만 아니라 유형에 대한 정보를 활용

하여 도덕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행동의 결과가 심각한 경우에 도덕 판단이 더 부정적이므로(Berg-Cross, 1975) 신체적 공격이 언어적 공격이나 관계적 공격에 비해 행동의 결과인 피해 정도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아는 자신의 도덕 판단에 대한 이유를 주로 상투화된 추론 유형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이는 공격행동이 포함된 딜레마 상황에 대해 3세와 5세는 처벌과 권위 기반 추론이나 상투화된 추론유형이 대부분이며 행동의 의도에 대한 언급이 적으며(Krcmar & Cooke, 2001), 6세 이상도 상투화 추론이 절반 이상을 보인 결과(Krcmar & Valkenburg, 1999)와 유사한 경향이다. 특히 공격행동에 대한 정당화 추론에서 상투화된 추론유형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유아들이 ‘때리는 것은 나쁘다.’와 같은 상투화된 반응을 주로 경험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3세도 일상생활에서 마음상태를 언급하고 안다, 생각한다와 같은 심리적 단어를 사용하지만(Booth & Hall, 1995; Shatz, Wellman, & Silber, 1983), 정당화 추론에서 심리적 상태를 언급하는 것은 서로 다른 능력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5세는 3, 4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당화 추론능력을 보였다. 이는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도덕 추론을 한다는 친사회적 도덕 추론(Eigenberg-Berg & Neal, 1981; Kohlberg, 1976; Lee & Yi, 2003)과 피해를 준 행동에 대한 도덕추론 연구 결과(Kim & Yi, 2008; Lane et al., 2010; Leslie, Knobe, & Cohen, 2006; Park & Yi, 2005)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령차는 판단의 이유를 설명할 때 유아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행위자의 의도를 언급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Berndt & Berndt, 1975)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유아는 신체적, 언어

적 공격보다 관계적 공격에 대한 추론에서 상대방의 의도나 관점을 언급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추론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공격행동에 대한 추론 시 행동의 유형에 따라서도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관계적 공격보다 신체적 공격에 대해 더 많이 개입하며, 신체적 공격에 대해서 부모의 권위를 발휘하는 강한 훈육전략을 사용하지만 관계적 공격에 대해서는 자녀의 행동을 고치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 않는다(Colwell, Mize, Pettit, & Laird, 2002). 이러한 훈육방식의 차이는 신체적 공격에 대한 정당화 추론에서 권위나 벌에 대한 언급 또는 상투적인 이유로 자신의 응답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려는 경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세와 5세는 관계적 공격에 대한 추론에서 타인의 관점을 언급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이는 도덕 발달은 사회적 경험을 통해 구성되며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적 맥락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Damon, 1988)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관계적 공격은 3세부터 나타나지만(Underwood, 2003), 4세 이후 다양한 또래관계를 경험하면서 관계적 공격에 대해 의도와 심리적 상태를 언급하는 추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도덕 판단과 정당화 추론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공격행동에 대한 도덕 판단에서 연령차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정당화 추론에서는 연령차가 나타났다. 이는 3세도 그 행동이 얼마나 나쁜지와 관련된 심각성 준거에서 4, 5세와 유사한 판단능력이 있다는 결과(Choi & Song, 1996; Park, 1999)와 일치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도덕 판단에서는 의도에 따른 차이가 있었지만 정당화 추론에서는 의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공격행동으로 인한 처벌(Krcmar & Cooke, 2001)이나 결과(Park & Yi, 2005)를 제

시할 경우 도덕 판단에서는 영향이 있지만 정당화 추론에서는 이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즉, 공격행동의 의도는 유아의 도덕 판단에 영향을 주지만, 정당화 추론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당화 추론보다 도덕 판단에서 의도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선행하는 지 또는 서로 다른 기제를 기반으로 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틀린민음 이해는 공격행동에 대한 도덕 판단 및 정당화 추론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덕 판단과 심리적 특질을 통해 행위를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능력의 관련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Astington, 1993). 그리고 도덕 판단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조망수용과 믿음을 처리하는 뇌 영역인 오른쪽 측두정엽이 활성화된다(Young, Cushman, Hauser, & Saxe, 2007). 이와 같은 뇌영상 분석 결과 역시 도덕적 판단은 의도, 믿음과 같은 마음 상태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는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를 지지한다. 그리고 틀린민음 이해와 정당화 추론은 3세보다 5세의 경우 더 많은 관련이 있고, 4세는 관련이 적었다. 이와 유사하게 틀린민음 이해와 도덕 규범, 인습위반 행동에 대한 도덕 판단의 관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에서 4세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으나 5세의 경우에는 두 변수 간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Chun & Lee, 2013). 이와 같이 연령별로 상이한 관계는 틀린민음 이해 능력이 다른 사회적 능력과 관련되는 것은 상황의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능력(Helwig, Zelazo, & Wilson, 2001)과 같은 제 3의 인지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도덕 판단에서는 연령차가 없지만 정당화 추론에서 연령차가 나타나며, 틀린민음 이해는 도덕 판단보다 정당화 추론과 높은 관련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도덕 추론에

서 보이는 연령차와 틀린민음 이해와의 관련성은 도덕 판단보다는 정당화 추론이 성숙한 도덕적 사고를 반영한다는 이성주의 모형의 견해를 지지한다. 그리고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즉각적인 의사결정인 도덕 판단은 정당화 추론과 구분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성주의 모형과 사회적 성숙주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 연구 결과에서 보이는 도덕 판단과 정당화 추론 발달 경향의 차이점은 도덕적 사고인 판단과 추론에 대한 각각의 교육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따라서 유아의 도덕성 발달을 위하여 도덕 판단뿐만 아니라 유아의 추론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그 이유를 함께 묻거나 판단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지도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즉각적인 가치 판단만을 묻거나 처벌과 같은 외적 판단기준을 강조하기보다는 도덕적 행동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교육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마음이해 능력을 틀린민음 이해 과제 수행능력으로 살펴보았으나 마음이해 능력을 다양한 과제로 측정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틀린민음 이해 능력만으로는 실제로 도덕적 행동을 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Moore, 2001) 유아의 도덕성 발달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서(Wheatley & Haidt, 2005), 공감능력(Krcmar & Curtis, 2003)과 같은 다른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의 사회 인지능력은 유아의 언어능력이나 가족 및 생활환경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보다 다양한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성주의 모형과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도덕 판단 및 정당화 추론의 기제 및 상호 관계와 도덕적 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도덕 판단 및 정당화 추론은 의도의 종류와 같은 세부 맥락의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또래 간 갈등 상황을 묘사한 과제를 구성하여 3세 유아도 상황에 따라 의도와 결과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공격행동의 유형을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도덕 판단 및 정당화 추론에서 공격행동의 유형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틀린민음 이해가 공격행동에 대한 도덕 판단, 정당화 추론과 유의한 관련이 있으며 그 중 정당화 추론과 더 많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또래관계에서 일어나는 민감한 행동인 공격행동에 대한 도덕 판단 및 정당화 추론의 경향과 틀린민음 이해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도덕성 지도 시 활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실제적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Astington, J. W. (1993). *The child's discovery of min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Astington, J. W. (2004). Bridging the gap between theory of mind and moral reasoning.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03, 63-72.
- Baird, J. A., & Astington, J. W. (2004). The role of mental state understanding in the development of moral cognition and moral

- action.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03, 37-49.
- Baird, J. A., & Moses, L. J. (2001). Do preschoolers appreciate that identical actions may be motivated by different intentions?.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2, 413-448.
- Bartsch, K., & Wellman, H. M. (1995). *Children talk about the mi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erndt, T. J., & Berndt, E. G. (1975). Children's use of motives and intentionality in person perception and moral judgment. *Child Development*, 46(4), 904-912.
- Berg-Cross, L. G. (1975). Intentionality, degree of damage, and moral judgments. *Child Development*, 46(4), 970-974.
- Blasi, A. (1980). Bridging moral cognition and moral ac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8(1), 1-45.
- Booth, J. R., & Hall, W. S. (1995). Development of the understanding of the polysemous meanings of the mental-state verb know. *Cognitive Development*, 10(4), 529-549.
- Choi, B. G., & Song, M. H. (1996). Preschool children's judgment on moral and conventional rul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4(4), 49-62.
- Chun, S. H., & Lee, H. J. (2013). Children's understanding of moral rule, conventional rule, and false belief.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13(4), 131-148.
- Colwell, M. J., Mize, J., Pettit, G. S., & Laird, R. D. (2002). Contextual determinants of mothers' interventions i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8(4), 492.
- Costanzo, P. R., Coie, J. D., Grumet, J. F., & Farnill, D. (1973). A re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intent and consequence on children's moral judgments. *Child Development*, 44(1), 154-161.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ushman, F., Young, L., & Hauser, M. (2006). The role of conscious reasoning and intuition in moral judgment testing three principles of harm. *Psychological science*, 17(12), 1082-1089.
- Damon, W. (1988). *The moral child*. New York: Free Press.
- Dunn, J., & Slomkowski, C. (1992).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understanding. In C. U. Shantz (Ed.), *Cambridge studies in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pp. 70-9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igenberg-Berg, N. (1979). Development of children's prosocial moral judgment: A longitudinal follow-up. *Developmental Psychology*, 15, 128-137.
- Eisenberg-Berg, N., & Roth, K. (1980).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prosocial moral judgment: A longitudinal follow-up. *Developmental Psychology*, 16(4), 375.
- Eigenberg, A. R., & Garvey, C. (1981). Children's use of verbal strategies in resolving conflicts. *Discourse Processes*, 4, 149-170.
- Eigenberg-Berg, N., & Neal, C. (1981). Children's moral reasoning about self and others effects of identity of story character and cost of helping in children's moral judgment. *Personality and*

- social Psychology Bulletin*, 7, 17-23.
- Eisenberg, N., Lundy, T., Shell, R., & Roth, K. (1985). Children's justifications for their adult and peer-directed compliant (prosocial and nonprosocial)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21(2), 325.
- Flavell, J. H., Miller, P. H., & Miller, S. A. (1993). *Cognitive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Y: Prentice Hall.
- Frodi, S., Macaulay, J., & Thome, P. R. (1977). Are women always less aggressive than men? A review of the experiment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4, 634-660.
- Gnepp, J. (1983). Inferring emotions from conflicting cues. *Developmental Psychology*, 19, 805-814.
- Gove, F. L., & Keating, D. P. (1979). Empathic role-taking precursors. *Developmental Psychology*, 15(6), 594-600.
- Haidt, J. (2001).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108(4), 814.
- Helwig, C. C., Zelazo, P. D., & Wilson, M. (2001). Children's judgments of psychological harm in normal and noncanonical situations. *Child Development*, 72(1), 66-81.
- Jeong, C. W. (2011). New trends in moral psychology and their implications for moral education -Focusing on J. Haidt's neuroscientific research-. *Journal of Korean Elementary Moral Education*, 37, 95-130.
- Killen, M., Mulvey, K. L., Richardson, C., Jampol, N., & Woodward, A. (2011). The accidental transgressor: Morally-relevant theory of mind. *Cognition*, 119(2), 197-215.
- Kim, H. R. (1997). Development of children's theory of mi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false belief.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0(1), 75-91.
- Kim, J. A., & Ohm, J. A. (2006).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moral judgement, moral emotions and mor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7(2), 85-100.
- Kim, S. E., & Chong, Y. S. (2000). Young children's use of intention and intentionality in moral judgment.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3(1), 49-64.
- Kim, Y. M., & Yi, S. H. (2007). Moral reasoning on aggressive behavior according to intention and type of act.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4(1), 85-105.
- Kohlberg, L. (1976). Moral stages and moralization: The cognitive development approach. In T. Lickona (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Theory, research, and social issues* (pp. 31-53).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Krcmar, M., & Cooke, M. C. (2001). Children's moral reasoning and their perceptions of television violence. *Journal of Communication*, 51(2), 300-316.
- Krcmar, M., & Curtis, S. (2003). Mental models: Understanding the impact of fantasy violence on children's moral reasoning. *Journal of Communication*, 53(3), 460-478.
- Krcmar, M., & Valkenburg, P. M. (1999). A scale to assess children's moral interpretations of justified and unjustified violence and its relationship to television viewing. *Communication Research*, 26, 608-634.
- Lane, J. D., Wellman, H. M., Olson, S. L., LaBounty, J., & Kerr, D. C. (2010). Theory

- of mind and emotion understanding predict moral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8(4), 871-889.
- Lapsley, D. K. (1996). *Moral Psychology*. Boulder, CO: Westview.
- Lee, O. K., & Yi, S. H. (2003). Children's percep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asks, prosocial moral reasoning, and prosocial decision-making.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4, 15-33.
- Leslie, A. M., Knobe, J., & Cohen, A. (2006). Acting intentionally and the side-effect effect theory of mind and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Science*, 17(5), 421-427.
- Malle, B. F. (1999). How people explain behavior: A new theoretical framework.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3(1), 23-48.
- Moll, J., Zahn, R., de Oliveira-Souza, R., Krueger, F., & Grafman, J. (2005). The neural basis of human moral cognition. *Nature Reviews Neuroscience*, 6(10), 799-809.
- Nelson, S. A. (1980). Factors influencing young children's motives and outcomes as moral criteria. *Child Development*, 51, 823-829.
- Núñez, M., & Harris, P. L. (1998). Psychological and deontic concepts: Separate domains or intimate connection? *Mind & Language*, 13(2), 153-170.
- O'Brien, M., Roy, C., Jacobs, A., Macaluso, M., & Peyton, V. (1999). Conflict in the dyadic play of 3-year-old children.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0(3), 289-313.
- Park, J. H., & Yi, S. H. (2005). Moral judgement and moral reasoning in 3- and 5-year olds: Aggressive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2), 1-14.
- Park, Y. S. (1999). Development of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moral and social-conventional rule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2(2), 11-23.
- Perner, J., Leekam, S. R., & Wimmer, H. (1987). Three-year-old's difficulty with false belief: The case for a conceptual deficit.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5, 125-129.
- Piaget, J. (1965).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New York: Free Press.
- Peterson, C. C., & Siegal, M. (2002). Mindreading and moral awareness in popular and rejected preschooler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2), 205-224.
- Rule, B. G., Nesdale, A. R., & Mcara, M. J. (1974). Children's reactions to information about the intentions underlying an aggressive act. *Child Development*, 45, 794-798.
- Shatz, M., Wellman, H. M., & Silber, S. (1983). The acquisition of mental verbs: A systematic investigation of the first reference to mental state. *Cognition*, 14(3), 301-321.
- Shultz, T. R. (1980).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intention. In W. A. Collins (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13, pp. 131-164). Hillsdale, NJ: Erlbaum.
- Sokol, B. W., Chandler, M. J., & Jones, C. (2004). From mechanical to autonomous agency: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moral judgment and their developing theories of mind.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03, 19-24.
- Son, S. H., & Yu, Y. O. (2011). The relations

- between a theory of mind and moral awareness related to young children's age and gender.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3), 137-150.
- Song, M. J., Smetana, J. G., & Kim, S. Y. (1987). Korean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conventional transgress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3(4), 577.
- Underwood, M. K. (2003). *Social aggression among girls*. NY: Guilford Press.
- Underwood, B., & Moore, B. (1982). Perspective-taking and altruism. *Psychological Bulletin*, 91(1), 143.
- Ward, J. (1995). Cultivating amorality of care in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A culture based model of violence prevention. *Harvard Educational Review*, 65, 175-188.
- Wellman, H. M. (2010). Understanding the psychological world: Developing a theory of mind. In U. Goswami (Ed.), *Blackwell handbook of childhood cognitive development* (pp. 258-284). Oxford: Blackwell.
- Wellman, H. M., Cross, D., & Watson, J. (2001). Meta-analysis of theory-of-mind development: The truth about false belief. *Child Development*, 72, 655-684.
- Wheatley, T., & Haidt, J. (2005). Hypnotic disgust makes moral judgments more severe. *Psychological Science*, 16(10), 780-784.
- Wimmer, H., & Perner, J. (1983). Beliefs about beliefs: Representation and constraining function of wrong beliefs in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ception. *Cognition*, 13, 103-128.
- Young, L., Cushman, F., Hauser, M., & Saxe, R. (2007). The neural basis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ory of mind and moral judgmen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4(20), 8235-8240.
- Yuill, N., & Perner, J. (1984). Intentionality and knowledge in children's judgments of actor's responsibility and recipients emotional re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 73-81.
- Zelazo, P. D., Helwig, C. C., & Lau, A. (1996). Intention, act, and outcome in behavioral prediction and moral judgment. *Child Development*, 67(5), 2478-2492.

Received February 28, 2014

Revision received April 29, 2014

Accepted May 20, 2014